

본당 소식

2024년 3월 생활말씀

“하느님, 깨끗한 마음을 제게 만들어 주시고 굳건한 영을 제 안에 새롭게

하소서.(시편 51,12).”

♣ 공동체 함께 성경 읽기

- 매일 7~8페이지씩 성경을 읽읍시다!(주님 성탄 대축일까지)

♣ 사순시기 판공성사는 가톨릭 신자의 의무입니다. 주님 부활의 기쁨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판공성사를 꼭 보시기 바랍니다.

- 미사 시작 전, 1층 Sala giochi.

♣ 파스카 성삼일 전례안내

파스카 성삼일은 우리 신앙의 핵심인 주님의 수난과 죽음, 부활의 파스카 신비를 전례적으로 기념하고 거행하는 교회 전례의 정점입니다. 성삼일 전례에 참여하여 성주간을 더욱 경건하고 충실하게 지내도록 합시다.

- 주님 만찬 성목요일 : 03월 28일, 저녁 8시

- 주님 수난 성금요일 수난 예식 : 29일, 저녁 8시

- 주님 부활 대축일 파스카 성야 : 30일, 저녁 8시

♣ 봉사자

• 계단,화장실: 정명용 미카엘

♣ 지난 주일 우리의 정성

• 봉헌금 230.10€ • 교무금 700,00€

전례 성가

입당 : 주님의 거룩한 도성(성가대)

봉헌 : 216 (십자가에 제헌되신), 210 (나의 생명 드리니)

성체 : 169 (사랑의 성사), 152 (오 지극한 성사)

파견 : 121 (한많은 슬픔에)

전례 봉사

| 이번 주일(24일) | 주님 만찬 성 목요일(28일) |
|-----------------------|------------------------|
| 1독서: 허희숙 마리아 | 1독서: 허희숙 마리아 |
| 2독서: 이승준 다니엘 | 2독서: 이승준 다니엘 |
| 복 사: 강윤이 스텔라, 변가인 헬레나 | 복 사: 강한 프란체스코, 박세아 루치아 |

2024년 3월 24일 (홍) 주님 수난 성지 주일

미사 전례

화답송



복음환호송

◎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네. 하느님은 그분을 드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네. ◎

복음 (마르코 15,1-39)

○ 해설자 + 예수님 ● 다른 한 사람 ▣ 다른 몇몇 사람 ◎ 군중

1 아침이 되자 수석 사제들은 곧바로 원로들과 율법 학자들, 곧 온 최고 의회와 의논한 끝에,

예수님을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겼다. 2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었다.

● “당신이 유대인들의 임금이요?”

○ 예수님께서서 대답하셨다.

+ “네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

3 ○ 그러자 수석 사제들이 여러 가지로 예수님을 고소하였다.

4 빌라도가 다시 예수님께 물었다.

● “당신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소?”

보시오, 저들이 당신을 갖가지로 고소하고 있지 않소?”

5 ○ 예수님께서서는 더 이상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빌라도는 이상하게 여겼다.

6 빌라도는 축제 때마다 사람들이 요구하는 죄수 하나를 풀어 주곤 하였다.

7 마침 바라빠라고 하는 사람이

반란 때에 살인을 저지른 반란군들과 함께 감옥에 있었다.

8 그래서 군중은 올라가 자기들에게 해 오던 대로 해 달라고 요청하기 시작하였다.

9 빌라도가 그들에게 물었다.

● “유대인들의 임금을 풀어 주기를 바라는 것이요?”

10 ○ 빌라도는 수석 사제들이 예수님을 시기하여

자기에게 넘겼음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11 그러나 수석 사제들은 군중을 부추겨 그분이 아니라
 바라빠를 풀어 달라고 청하게 하였다. 12 빌라도가 다시 군중에게 물었다.
 ● “그러면 여러분이 유대인들의 임금이라고 부르는 이 사람은
 어떻게 하기를 바라는 것이오?”
 13 ○ 그러자 군중은 거둑 소리 질렀다.
 ◎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14 ○ 빌라도가 그들에게 물었다.
 ● “도대체 그가 무슨 나쁜 짓을 하였다는 말이오?”
 ○ 군중은 더욱 큰 소리로 외쳤다.
 ◎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15 ○ 그리하여 빌라도는 군중을 만족시키려고,
 바라빠를 풀어 주고 예수님을 채찍질하게 한 다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넘겨주었다.
 16 군사들은 예수님을 뜰 안으로 끌고 갔다. 그곳은 총독 관저였다.
 그들은 온 부대를 집합시킨 다음, 17 그분께 자주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머리에 씌우고서는, 이렇게 말하며 인사하기 시작하였다.
 18 ■ “유대인들의 임금님, 만세!”
 19 ○ 또 갈대로 그분의 머리를 때리고 침을 뱉고서는,
 무릎을 꿇고 엎드려 예수님께 절하였다.
 20 그렇게 예수님을 조롱하고 나서 자주색 옷을 벗기고 그분의 겹옷을 입혔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끌고 나갔다.
 21 그들은 지나가는 어떤 사람에게 강제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하였다.
 그는 키레네 사람 시몬으로서 알렉산드로스와 루포스의 아버지였는데,
 시골에서 올라오는 길이었다.
 22 그들은 예수님을 끌고타라는 곳으로 데리고 갔다.
 이는 번역하면 ‘해골 터’라는 뜻이다.
 23 그들이 몰약을 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건넸지만 그분께서는 받지 않으셨다.
 24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리고 나서 그분의 겹옷을 나누어 가졌는데
 누가 무엇을 차지할지 제비를 뽑아 결정하였다.
 25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때는 아침 아홉 시였다.
 26 그분의 죄명 패에는 ‘유대인들의 임금’이라고 쓰여 있었다.
 27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강도 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하나는 오른쪽에 다른 하나는 왼쪽에 못 박았다.
 지나가는 자들이 머리를 흔들며 그분을 이렇게 모독하였다.
 ■ “저런! 성전을 허물고 사흘 안에 다시 짓겠다더니.
 30 십자가에서 내려와 너 자신이나 구해 보아라.”
 31 ○ 수석 사제들도 이런 식으로 율법 학자들과 함께 조롱하며 서로 말하였다.

■ “다른 이들은 구원하였으면서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군.
 32 우리가 보고 믿게, 이스라엘의 임금 메시아는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시지.”
 ○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그분께 비아냥거렸다.
 33 낮 열두 시가 되자 어둠이 온 땅에 덮여 오후 세 시까지 계속되었다.
 34 오후 세 시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으셨다.
 +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박타니?”
 ○ 이는 번역하면, ‘저의 하느님,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라는 뜻이다.
 35 곁에 서 있던 자들 가운데 몇이 이 말씀을 듣고 말하였다.
 ■ “저것 봐! 엘리야를 부르네.”
 36 ○ 그러자 어떤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을 신 포도주에 적신 다음,
 갈대에 꽂아 예수님께 마시라고 갖다 대며 말하였다.
 ● “자,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 주나 봅시다.”
 37 ○ 예수님께서서는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을 거두셨다.
 <무릎을 꿇고 잠깐 묵상한다.>
 38 ○ 그때에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갈래로 찢어졌다.
 39 그리고 예수님을 마주 보고 서 있던 백인대장이
 그분께서 그렇게 숨을 거두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 “참으로 이 사람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셨다.”

보편 지향 기도

1.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인도자이신 주님, 주님의 교회를 이끌어 주시어, 죽음을 무릅쓰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본받아, 복음 선포를 위하여 언제나 용감히 나아가게 하소서.

2. 정치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의로우신 주님, 국민을 섬기고자 애쓰는 정치인들에게 식별의 은총을 주시어, 개인의 이익과 명예를 앞세우기보다 모든 이가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고자 최선을 다하게 하소서.

3. 가난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보호자이신 주님, 가난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굶어살피시어, 그들의 건강을 지켜 주시고, 그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게 하시며, 저희는 사순 시기의 정신을 올바르게 실천하게 하소서.

4. 지역 사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랑이신 주님,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을 돌보아 주시어, 모든 이가 삶의 터전으로서 아끼며 가꾸게 하시고, 이웃과 희로애락을 나누며 정겹게 살아가게 하소서.